

2022-05-23 (2022-20호)

5월 23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달러 고점론 확인 필요... 연준 회의록•금통위 등 굵직한 이벤트 대기

서울, 5월16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에 연동된 흐름을 지속하면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회의 의사록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등 굵직한 이벤트를 소화하며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55-1,285원이다.

달러/원 환율이 단숨에 1,300원대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이전보다 많이 꺾였지만 글로벌 달러 행보와 국내외 증시 여건 따라 환율의 상승 변동성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물가·저성장 테마 아래 미국 증시의 약세 지속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미국 증시 약세 강도에 따라 시장 심리가 결정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한편 강달러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달러는 고점에서 잠시 주춤해진 듯하지만, 아직 달러 고점론을 말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금주 공개되는 연준 5월 회의 의사록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번 회의록을 통해 공개되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와 성장 전망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러 강세 모멘텀 재확산 여부가 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 후반에 나올 4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결과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지표다.

한편, 그간 원화 약세를 부추겼던 중국 금융시장 불안이 안정을 되찾을 지도 변수다. 중국 상하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 데 따른 지역 봉쇄조치 완화와 함께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기조가 맞물려 중국 증시와 위안 가치의 가시적인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번 주는 금통위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데뷔전인 만큼 이번 회의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다.

'빅 스텝'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지만 곧장 한은의 진화 작업이 뒤따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 전망은 유효하다.

이 같은 결정에 따른 원화 반응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방안에 대한 힌트를 한은 총재로부터 얻을 수 있을지에 더욱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외 한국의 이달 20일 기준 수출입 잠정치, 4월 거주자 외화예금, 1분기 국제투자대조표, 미국 5월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국내외 경제지표도 챙겨봐야 한다. 또한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뉴질랜드 중앙은행 회의 등도 눈여겨 볼 이벤트다.



* 달러/원, 달러/위안 3개월간 추이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5월23일(월)

- 기획재정부: 제2차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10:00)
-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0:30)
- 한국은행: 2022년 4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 (12:00)
- 한국은행: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BOK이슈노트 2022-19) (12:00)
- 금융감독원: 2021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 (12:00)
- 금융감독원: 2021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동향 및 시사점 (12:00)

5월24일(화)

- 한국은행: 2022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06:00)
- 한국은행: 2022년 1/4분기 가계신용(잠정) (12:00)
- 금융감독원: 2021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12:00)
- 통계청: 2021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잠정) (12:00)

5월25일(수)

- 한국은행: 2022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한국은행: 동향보고회의 (09:00)
- 한국은행: 「2022년 BOK 국제컨퍼런스」 개최 예정 (12:00)
- 한국은행: 2022년 1/4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 (12:00)
- 한국은행: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발간 (12:00)
- 금융감독원: 2021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12:00)
- 기획재정부: 2022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2:00)
- 통계청: 2021년 3월 인구동향 (12:00)
- 통계청: 2022년 4월 국내인구이동 (12:00)
- 통계청: 제1회 SDG 데이터 혁신 포럼 개최 (14:00)

5월26일(목)

- 금융감독원: '22.4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06:00)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09:00)
- 기획재정부: 2022년 기금평가 결과 (10:00)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2020~2050년 (12:00)
- 통계청: 2021년 4/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12:00)
- 한국은행: 경제전망(2022.5월) (13:30)
- 기획재정부: '22년 6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5월 발행 실적 (17:00)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배포시)

5월27일(금)

- 기획재정부·한국은행: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08:00)
- 기획재정부: 제1차관 경제관계차관회의 (10:00)
- 한국은행: 2022년 4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2:00)
- 국민연금: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2023~2027),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등) (배포시)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단위	이전수치
5월23일	21:30	미국	전미활동지수	4월		Index	0.44
5월24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5월		Index (diffusion)	53.5
5월24일	17:00	유로존	S&P 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5월	55.0	Index	55.5
5월24일	17:00	유로존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5월	58.2	Index	57.7
5월24일	21:00	미국	건축허가	4월		Number of	1.819M
5월24일	22:45	미국	S&P 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5월		Index	59.2
5월24일	22:45	미국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5월		Index	55.6
5월24일	23:00	미국	신규주택 판매	4월	0.758M	Number of	0.763M
5월25일	20:00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5월16일 주간		Index	
5월25일	21:30	미국	내구재주문	4월	0.5%	Percent	1.1%
5월26일	21:30	미국	기업이익 잠정치	1분기		Percent	
5월26일	21:30	미국	GDP 수정치	1분기	-1.4%	Percent	-1.4%
5월26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5월16일주간		Person	
5월26일	23:00	미국	잠정주택 판매지수	4월		Index	103.7
5월27일	00:00	미국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	5월		Index	28
5월27일	08:30	일본	도쿄 CPI	5월		Percent	2.5%
5월27일	10:30	중국	산업이익 YY	4월		Percent	12.20%
5월27일	17:00	유로존	총 유동성(M3) 증가율	4월		Percent	6.3%
5월27일	17:00	유로존	가계대출	4월		Percent	4.5%
5월27일	21:30	미국	개인소득 MM	4월	0.6%	Percent	0.5%
5월27일	21:30	미국	근원 PCE 물가지수	4월		Percent	0.3%
5월27일	21:30	미국	도매재고	4월		Percent	2.3%
5월27일	21:30	미국	소매재고	4월		Percent	2.5%
5월27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최종치	5월	59.1	Index	59.1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5월23일(일)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유로그룹 회의 참석
- ⊙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 논의 패널 토론 참석 (오후 11시15분)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애틀랜타 로터리 행사 참석 (24일 오전 1시)

5월24일(화)

- ⊙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캔자스시티 연은 농업 심포지엄 연설 (오전 8시30분)
-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5월 서비스업 경기전망 서베이 발표 (오후 9시30분)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NCAIED 보존 경제 서밋 환영사 (25일 오전 1시20분)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 (25일 오전 3시)

5월25일(수)

- ⊙ 뉴질랜드 중앙은행, 통화정책 성명 발표·기자회견
- ⊙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 2022 BOJ-IMES 컨퍼런스 개회사 (오후 8시5분)
- ⊙ 라엘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이사, 존스홉킨스 대학교 연설 (26일 오전 1시15분)
- ⊙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5월3~4일 통화정책회의록 공개 (26일 오전 3시)

▶ 금주 세계 5대 이슈

⊙ 연준 5월 회의록

연방준비제도의 5월3~4일 정책회의 회의록이 오는 25일 공개된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경기침체를 초래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 연락처 달성을 자신하고 있으나 미국 주식시장은 공격적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75bp 인상을 단행한 연준은 7월 회의에서 50bp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널리 전망된다.

투자자들은 이번 회의록을 통해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와 성장 전망을 다시 한번 가늠해 볼 것이다.

⊙ 주가 추가 하락 가능성

미국 증시 S&P500지수가 20일 장 중 지난 1월 고점 대비 20% 하락해 '기술적 약세장'을 확인하는 등 증시는 계속 불안한 모습이다.

지난주 S&P500과 나스닥지수는 7주 연속 하락, 다우지수는 1932년 이후 최장인 8주 연속 주간 하락을 기록했다.

바클레이즈와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기업 마진이 타격을 입으면서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자산시장의 가격 하락도 가파르다. 미국 국채 30년물 가격은 2020년 3월 고점 기록 후 절반가량

하락했고, 안전자산인 금값도 이번 분기에만 6% 하락했다.

극심한 변동성에 개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위축돼 있다. 미국 개인 투자자 심리지수는 2009년 3월 저점에 근접했고 펀드매니저들은 현금 비중을 2011년 9월 이후 최대로 늘렸다.

◎ 주요국 5월 PMI

이번 주에는 미국, 호주, 영국, 일본, 유로존의 5월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조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성장 전망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이번 지표가 추가적인 경기 둔화를 시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지표가 안 좋으면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중앙은행들은 경기침체 리스크를 좀 더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뉴질랜드 중앙은행 금리 인상 전망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25일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전망이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 21명 중 20명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2.00%로 50bp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고 나머지 1명은 25bp 인상을 예상했다.

전망대로라면 두 차례 연속 50bp 인상은 199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 러시아 다시 디폴트 위기

미국이 오는 25일 돌아오는 러시아의 채무 상환 거래 허용 시한을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러시아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러시아는 27일 1억달러 규모의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미국이 러시아의 상환 허용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대러 제재 유예를 끝내면 미국의 은행이나 투자자들은 러시아로부터 이자나 원금을 상환받을 수 없다.

러시아가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러시아산 가스가 유럽으로 계속 순조롭게 공급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다. 유럽연합(EU)은 기업들의 루블 계좌 개설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아직 이를 대러시아 제재 위반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진 않고 있다. 러시아는 EU 천연가스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칼럼) - 환율 불안 때마다 소환되는 한미 통화스왑, 유일한 해법?

서울, 5월16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달러/원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매섭게 오르자 한미 통화스왑 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미 통화스왑이 시장을 달래는 유일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이다.

전 세계가 치솟는 물가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선두로 주요국들이 서둘러 통화긴축에 나서고, 최근에는 세계 경제 둔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구조를 반영해 원화 가치는 빠른 속도로 절하됐다.

따지고 보면 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에 나 홀로 원화 약세도 아닌 데다 원화 절하폭도 달러지수 상승 폭과 속도가 거의 비슷하니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1,300원이라는 달러/원 환율 레벨에 있었다.

올해 초 환율이 1,200원대로 '빅 피겨'를 바꿀 때만 해도 달러 강세와 맞물린 활발한 해외 주식투자, 수입 규모 확대 등 외환수급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차분한 해석이 뒤따랐다. 하지만 조금만 시계를 돌려보면 알겠지만 과거 환율이 1200원대에서 거래됐던 적은 유럽발 재정위기, 중국 금융불안 및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 녹록지 않은 대외 리스크가 갑자기 불거졌을 때였다.

달러/원 1,200원대를 비교적 차분하게 받아들였던 것과는 달리 최근 환율이 1,300원을 위협할 정도로 오르자 여기저기서 숨가쁜 평가와 동시에 환율 방어가 필요하다는 외부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환율이 1,300원대에 거래됐던 적은 2008-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던 만큼 충분히 과거 위기 트라우마를 다시 불러일으킬 만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미 통화스왑 체결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라던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까지 더해지고 있다.

▲ 외환체력 보강해도 무용지물?

국내 외환시장은 달러 유동성 문제가 생길 때 경고음이 울린다. 그렇다 보니 필요시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한미 통화스왑은 최고의 외환시장 안전판으로 간주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300억달러,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6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 체결 이후 외환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은 학습효과 만으로도 한미 통화스왑이 가지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차분한 평가와 그간 보강된 외환 체력은 살피지도 않은 채 한미 통화스왑만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만능키로 생각하는 것은 아쉽다.

앞서도 말했지만 연간 원화 절하율은 7%대로 달러지수 상승률 8% 수준과 거의 같다. 원화 약세는 강달러 현상 때문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때처럼 글로벌 달러 유동성 사정이 어려워 달러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다.

기축통화 관점에서 직접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미국과 상설 통화스왑을 체결 중인 유로 가치도 떨어졌고, 엔은 말할 것도 없다. 결국 달러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리고 적정 규모 논란이 있지만 5월 말 기준 4,5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도 이전 대비 보강된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 사태를 맞기 직전 2019년 말 외환보유액은 4,075억달러였다.

또한 국내 해외투자 급증에 작년 말 순대외금융자산은 약 6,400억달러로 역대 최대였고, 대외채무 가운데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외채 비중은 26.4%로 2015년 이후 최저였다.

외환제도 측면에서도 시장 불안을 촉발했던 빈틈은 메워졌다고 본다. 2020년 증권사 파생거래 증거금 납입 등 비 은행권의 달러 수요 급증과 이로 인한 환율 급등을 경험한 외환당국은 비 은행권의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앞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시장 불안을 야기했던 파생상품 거래 시 은행 간 달러 담보 사용도 줄여 국내은행들이 달러 리스크에 노출된 정도도 크게 줄었다.

아울러 외환당국은 작년 12월 미 연준과 레포 기구를 통해 필요할 때 달러 자금을 조달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환매조건으로 맡기면 연준이 달러를 공급하는 제도로 거래 한도는 600억 달러다. 결국 달러 조달창구를 하나 더 보충한 셈이다.

환율 1,300원대가 위기 국면을 열어젖히는 판도라 상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고금리와 강달러의 뉴 노멀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국면에서 그 어떤 예단도 지금은 힘들다. 그만큼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가 시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장이 조금 불안해질 때마다 한미 통화스왑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주장하기보다는 이전보다 달라진 외환시장 환경과 체력을 조금은 눈여겨봐야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현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허용과 거래시간 대폭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외환제도 변화 과정에서 이전보다 확대될 원화의 변동성을 감내야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를 감내할 여력이 있는지 문득 의문이 생긴다.

어제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스왑에 준하는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이 쏠린다.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결과물이 무엇인지 주목된다. 결과에 따라 시장의 불안심리가 완화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통화스왑에 준하는 '한방'이 없으면 시장은 실망하며 불안해해야 할까?

(편집 임승규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5월20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268.1	1.3%	-6.3%	-8.6%	유로	1.0562	1.4%	-7.1%	-6.9%
100엔 대비	996.5	-0.7%	3.7%	+1.8%	엔	127.87	1.0%	-10.0%	-10.3%
유로 대비	1,345.8	-1.1%	0.4%	-1.9%	위안	6.6921	1.5%	-5.0%	+2.7%
위안 대비	190.38	-1.1%	-1.8%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1,261.90	-2.9%	-14.0%	+18.7%
코스피	2,639.29	1.3%	-11.4%	+3.6%	나스닥	11,354.62	-3.8%	-27.4%	+21.4%
코스닥	879.88	3.1%	-14.9%	+6.8%	S&P500	3,901.36	-3.0%	-18.1%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539.67	3.3%	-14.3%	-4.9%
국고채 3Y	3.011%	10.0bp	121.3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3.203%	8.1bp	119.2bp	+67.6bp	미국채 2Y	2.580%	-1.0bp	185.0bp	+61.0bp
국고채10Y	3.245%	2.4bp	99.5bp	+53.7bp	미국채 10Y	2.790%	-14.0bp	128.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110.35	0.2%	46.3%	+55.8%	한국 5Y	46.4bp	2.2bp	24.3bp	-0.7bp
금(현물)	1,846.68	1.9%	1.0%	-3.6%	일본 5Y	20.4bp	0.0bp	2.8bp	+2.1bp
TR상품지수	3,883.51	0.6%	16.3%	+24.6%	중국 5Y	85.7bp	0.5bp	44.5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